

전남교육청, 중등 ‘2030교실’ 미래형 수업 실현 속도

에듀테크 설명회 연계 연찬회 워크숍
학교 현장 실질적 수업 변화 구체화

전남교육청이 중등 ‘2030교실’을 중심으로 전남형 미래 수업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8일과 29일 2030교실 에듀테크 설명회와 연계한 ‘2030교실 관리자 연찬회’와 ‘2030수업연구회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수업 변화와 미래형 교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는 2030교실 선정학교 관리자, 업무담당자, 2030수업 지원단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2030교실의 운영 방향, 공간 구축 절차, 인공지능(AI)·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수업 컨설팅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박철휘 광영중학교 교감이 발표한 컨설팅 사례 발표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2030교실을 어떻게 설계하고 수업에 접목했는지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연찬회에 참여한 한 교사는 “2030교실의 실제 사례와 절차를 들으며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해졌다”며 “AI·빅데이터 플랫폼 설명을 통해 수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가능성을 보았고,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닌 수업 내용과 방식의 전환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에는 2030수업연구회 활동의 내실화



지난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형 미래 수업 실현을 위한 ‘2030교실 관리자 연찬회’가 열렸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를 위한 워크숍도 열렸다.

이날 ‘중등 2030수업연구회 워크숍’에는 수업연구회 회원과 컨설턴트 등 255명이 참여해 수업계획 컨설팅부터 연구회별 협의회, 수업계획서 공유, 2030교실 조성 방향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진행해 봤다.

특히 연구회별 협의회 시간에는 컨설팅을 바탕으로 수업계획을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2030교실에서 실현 가능한 수업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철환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030교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 구축부터 수업 설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을 시도하고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올해 25개 중등교실과 15개 AI교실 등 총 40개의 2030교실을 선정해 설계부터 수업 운영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업연구회와 수업축제 등을 통해 교사들의 실천 사례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건양대-코랩, 치매극복기술 초고속 상용화 MOU

치매 정밀의료 실현 플랫폼 구축

조선대학교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GARD cohort research center, 단장 이건호)과 건양대학교 알츠하이머병 비임상 효능시험센터(센터장 문민호) 및 임상서비스 전문기업 코랩(kolab, 대표 김하숙)이 손을 맞잡고 치매 분야 정밀의료 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임상(Predclinical) 연구와 임상(Clinical) 연구의 연계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의료기술의 초고속 인허가 플랫폼(Fast-track approval platform)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이들 기관은 ▲알츠하이머병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기술의 임상, 전임상 효능 평가 ▲알츠하이머병 등 노인성 뇌 질환 원인 규명 ▲임상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 진단기술 개발 ▲임상-비임상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 및 수행 ▲연구 인프라 및 전문인력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구체적인 공동연구로는 비임상-임상 연계 바이오마커 발굴, 환자 맞춤형 치료제의 효능 예측 모델 개발 및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임상 모델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 기관이 결합하는 강점으로는 ▲‘조선대 GARD 코호트’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치매 전단계 고위험군 임상 데이터 확보 ▲‘건양대 알츠하이머병 비임상 효능시험센터’의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비임상 유효성 평가 전문성 보유 ▲‘코랩’의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정밀의료 기반 TRC-SMO 초고속 임상실증과 임상시험 서비스 제공으로 들 수 있다.

조선대 GARD 코호트 이건호 단장은 “GARD 코호트의 임상 빅데이터는 건양대의 비임상 모델 개발과 유효성 평가에 필수적인 타겟과 바이오마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세 기관의 데이터와 전문성이 융합된 통합 플랫폼은 치매 치료제와 진단기구의 국내 허가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양대 알츠하이머병 비임상 효능시험센터 문민호 센터장은 “비임상과 임상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치매 정밀의료 상용화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은 기술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뛰어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랩 김하숙 대표는 “코랩은 즉시 임상시험이 가능한 참가자 코호트를 확보하고 있어, 임상시험 개시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폐합자 모집과 맞춤형 대상자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빠르



왼쪽부터 김하숙 대표, 이건호 단장, 문민호 센터장

게 임상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임상-임상 연계의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까지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치매 정밀의료 상용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히, 세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게 될 초고속 인허가 플랫폼은 치매 의료기술의 개발 단계부터 임상 적용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학교 제22대 이근배 총장 취임

“지역 성장 견인하는 거점기지 역할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 시킬 것”

전남대학교 제22대 이근배 총장의 취임식이 지난 26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렸다.

〈사진〉

취임식에는 지병문·정병석·정성택 전임 총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근배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26년간 교수로 몸담아온 모교에서 총장으로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1952년 창학이념을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대학교를 더욱 굳건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통’과 ‘지역 상생’을 강조하며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지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전남대를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근배 총장은 전남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교수로 24년간 재직하면서 전남대 직선제 초대 교수회장 및 평의원회 의장, 거점국립대 교수연합회 회장, 호남·제주국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상임회장,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와 고등교육 정책 수립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왔다.



이근배 총장의 임기는 2029년 2월까지이며, 지난 2월 26일 취임 후 대학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는 등 대학의 미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문과 역량 결집 100년 명문사학 발돋움”

광주대, 개교 45주년 ‘학교사랑 동문 네트워크 DAY’ 행사

개교 45주년을 맞은 광주대학교(김동진 총장)가 오피니언 리더 동문 초청 ‘학교사랑 동문 네트워크 DAY’ 행사를 열고, 모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학생 취·창업 연계 멘토링 등 다양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광주대 대외협력처 주관으로 최근 열린 행사에는 김동진 총장과 대학 보직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동문 등 100여 명이 참석,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광주대의 개교 45주년 발자취를 담은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또 최주남 총동창회장, 하이누리그룹 김동기 회장, 광주은행 동문 일동은 ‘학교사랑 45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하며,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힘을 보탤다.

김동진 총장은 “국내외 각지에서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계신 8만여 동문의 격려와 지원은 광주대학교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었고, 가장 큰 자부심이다”라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 호심 김인근 박사의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동문과의 유대 강화와 역량을 결집해 100년 명문사학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도 이날 동문 자격으로 참석해 “오늘이 있기까지 광주대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광주대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는 동문 한 분 한 분이 지금의 광주대를 있게 만든 주인공이다”라며 “모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가 밀어주고 당겨주며 더 열심히 뛰어 보자”라고 분위기를 돋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